

2013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수시2차모집 논술우수자전형

## 논술고사 문제지<인문사회계열-정오반>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p>◆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input type="checkbox"/> 본 문제지는 표지 1면과 문제지 3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li><li><input type="checkbox"/> 논술고사 시간은 총 90분입니다.</li><li><input type="checkbox"/> 답안의 자수 제한은 없으나, 1개 문항 당 1장의 답안지 내에서만 작성해야 합니다. 즉, &lt;1번 문항&gt;은 답안지 1면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하며, &lt;2번 문항&gt;은 답안지 2면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li><li><input type="checkbox"/> 연습지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li><li><input type="checkbox"/> 답안은 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만 작성하며 연필, 샤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li><li><input type="checkbox"/> 답안을 수정할 때는 잘못된 부분에 두 줄을 긋고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수정테이프나 수정액도 사용가능하지만 수험생들 간에 빌려주는 행위는 불가합니다.</li><li><input type="checkbox"/> 답안지에는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li><li><input type="checkbox"/> 답안지 교체는 고사 시작 후 70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는 교체가 불가합니다.</li></ul>		



**서울여자대학교**  
SEOUL WOMEN'S UNIVERSITY

[문항 1] 다음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고, 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본인의 구체적 경험 또는 사회적 현상을 들어 논술하시오.

<제시문 1>

‘피로 사회 비판’, ‘느린 삶’, ‘휴식 속의 행복’이 요즘 출판의 키워드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일대 반격이 강력하다. 뇌과학, 진화인류학, 행동경제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목하 맹활약 중인 행복전도사들을 상대로 글을 풀어간다. 이른바 ‘에텐주의’를 비난한다. “뜬구름 잡거나 사탕발림으로 사람들을 선블리 위안하려 들지 마라.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에텐주의자들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렇다. ‘미친 무한경쟁을 중단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들은 현대인을 ‘쾌락의 러닝머신’ 위에서 끝없이 질주하는 신세라 동정하고, 경쟁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암적 존재라 질타한다. 경쟁을 동력 삼는 자유시장과 자본주의는 인류의 새로운 원죄로 내몰린다. 하지만 다 낭만적인 허구다. 인류학 연구 성과를 보면 야생은 비참했고 인류는 인정사정없는 지상의 삶과 포식자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분투해야 했다. 자연의 출발점은 가난이었고 경쟁은 삶의 숙명이자 조건이었다. 에텐주의자들은 경쟁이 불평등을 낳았다고 하지만 경쟁시대 이후야 생필품 값은 사상 최저로 내려갔다. 평균수명은 지난 15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오히려 팽팽한 경쟁과 긴장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뇌를 보면 분명하다. 사랑, 새로운 지식, 부와 지위, 무엇이든 맹렬히 추구할 때 도파민(쾌락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된다. 인간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뭔가를 성취하려 한다. 아이들을 공중에 띄워보라. 처음엔 떨다가도 짜릿함에 웃는다.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들도 쉴 새 없이 모험에 나선다. 보행기에도 가짜 운전대를 달아주는 이유이다.

새 일에 대한 야심이 없으면 뇌세포도 시들해진다. 중년 이후 남성들의 일과 인지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했더니 나이가 들어서도 상대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하는 미국과 덴마크의 남성들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남성들보다 인지능력이 높았다.

세상에 경쟁 없는 체제는 없다. 소련 공산체제에서도 시민들은 식권과 아파트를 두고 경쟁했다. 문화혁명 때도 암투가 난무했다. 불평등이나 위계는 경쟁체제 이전부터 있었다. 오히려 공개경쟁이 낳는 위계가 정직하다. 이러한 경쟁의 결과는 일시적이다. 승패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 그 결과, 누구나 더 나은 것을 꿈꾼다.

행복전도사들이 혐오하는 경쟁스트레스도 인생에서 ‘맛소금’ 같은 것이다. 우리는 놀이조차 경쟁을 즐긴다. 룰과 승패가 분명한 스포츠에 열광한다. 팀워크나 동지애도 경쟁의 상황에서 나온다. 앨범 판매 수익만도 넉넉했던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담스러운 라이브 공연을 계속한 것도 무대 위 긴장이 주는 행복 때문이었다. 존스홉킨스대 연구 결과,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임산부가 낳은 아기가 발육상태도 좋고 인지검사 점수도 높았다.

## <제시문 2>

<그리스 비극>에서와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충격적인 이야기일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관습적인 의미의 성공은 행복보다 훨씬 더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성공을 거둔 사람들 중, 신경증 환자들은 수천, 수만 명인 반면, 행복한 사람은 좀처럼 찾기 힘들다.

만약 당신이 성공을 거두었지만 행복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개인적인 욕심으로 행복을 추구하지는 말자. 행복은 욕심을 갖고 자신을 좇는 사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듯하다. 성공을 통해서든 혹은 다른 식으로든 맹렬히 좇을수록 행복은 오히려 비껴가는 듯 보인다. 행복은 돈을 주고 살 수도, 계속 무언가를 추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행복이 될 때, 행복은 언제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듯하다. 에릭 호퍼는 “행복의 추구는 불행의 가장 중요한 원천 중 하나다.”라고 말했으며, 이디스 워튼도 “행복 해지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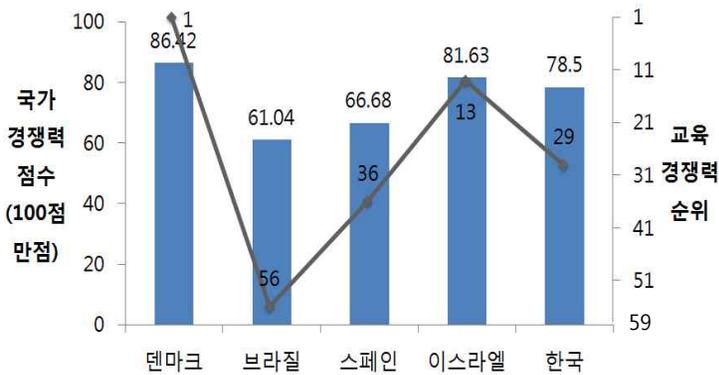
행복을 추구하는 대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살아보자. 지금의 모습과 달라야 한다는 믿음에서 불행이 생겨난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자. 이루지 못한 수많은 것들을 대신해 우주는 당신에게 더 나은 것들을 가져다주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은 당신의 임무이다. 놀랍게도 행복한 삶은 불행이 없는 삶이 아니다. 당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불행은 삶 속으로 슬금슬금 기여 들어온다. 행복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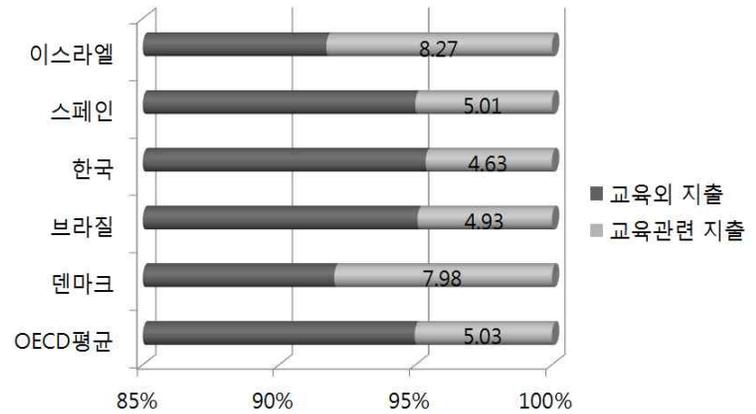
행복이 당신을 잊었다고 생각될 때는 현재의 불행에서 어떤 보물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머지않아 행복은 당신을 기억해 내고 슬그머니 당신의 삶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삶의 흐름에 좀 더 순응하려고 노력해 보자. 무엇을 이루겠다고 번번이 애쓰지 말고 그냥 일어나게 내버려 두자. 달리고 있는 방향으로 말을 타기가 훨씬 수월한 법이다. 달리 말하면, 행복을 찾아 헤매는 대신 스스로 행복의 원천이 되어보자는 뜻이다. 바로 이곳에 행복이 있다면 구태여 그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을 테니 말이다.

[문항 2]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교육의 강점과 약점을 설명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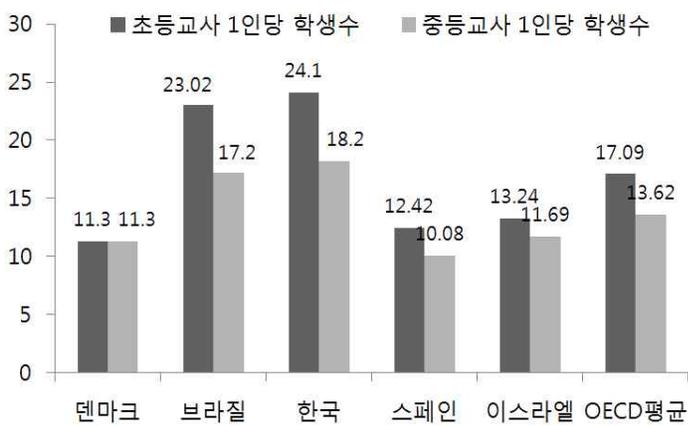
<그림 1> 2011년 국가별 경쟁력 점수 및 교육경쟁력 순위 (59개국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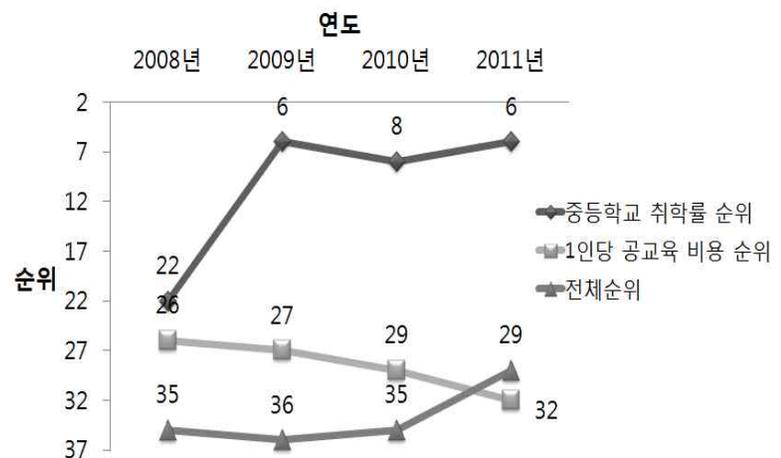
<그림 2> 2011년 국가별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



<그림3> 2011년 국가별 초등/중등교사 1인당 학생 수(명)



<그림4> OECD국가 중 한국의 교육 분야 세부지표별 순위변화



<표1> 2011년 국가별 세부지표 점수

	학업성취도(수학)*	학업성취도(과학)*	영어숙달도**	고등교육 이수율(%)***
덴마크	503	499	99	43
브라질	386	405	85	11
한국	546	538	81	58
스페인	483	488	87	39
이스라엘	483	489	89	20
OECD평균	500	500	87	33

\*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수학과 과학점수임  
 \*\* 토플(TOEFL) 성적임(총점 120점)  
 \*\*\* 고등교육은 대학수준의 교육을 말함